

###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2020년 12월 도시재생 사업의 한 유형인 새뜰마을 사업 중에서 서구의 양동 고령친화형 사업이 광주에서 최초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도에 시작하여 국비 23억 원 지방비 13억 원 총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끝낸 것이다. 양동 새뜰마을 사업지는 양동시장의 배후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전 통시장 방면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었다. 광주의 중심 지역임에도 유출 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 공폐가도 함께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뜰마을사업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과 골목길 정비,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로당 신·증축 등 기반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재정비와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새로운 물류센터나 병원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도 들어서면서 아득히 부족하지만 과거 어지러웠던 모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새뜰마을에 들어서 커뮤니티센터와 경로당 및 공유작업장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서구청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의 노력으로 재생사업에서 가장 어렵다는 부지 매입부터 설계 시공까지 지역의 아뜨폴리와 같은

## 도시재생의 성과와 방향

예쁜 건축물로 완성되었다. 경사 지형의 특징을 살린 하얗고 파란 그리스 산토리니 이미지의 타일 벽화와 함께 새롭게 들어선 거점 건축물들은 어두웠던 지역의 이미지를 밝게 변신시켜 주었다. 이번만 아니라 1km 정도 선형으로 이루어진 사업지의 주민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공간에서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민이 서로 화합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 양동 새뜰마을사업으로 가장 일찍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시작된 양동 닭전머리 일대의 복잡복잡한 도시재생의 효과가 우리가 사는 도시 광주에서도 의미 있게 자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생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같이 협력하고 주도해서 서서히 이루어 낸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지역민이나 관 어느 한쪽이라도 느슨해지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 조직이 바로 현장지원센터이다.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다른 사업들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현재 뉴딜사업을 포함한 87개 사업에 1조 8320억 원 규모의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뉴딜사업은 2017년부터 18개 사업에 1조 7009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을 포함해 22개 사업 821억 원 규모이다. 대단히 큰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들여다 보면 광주형 경제기반형 사업이 1조156억 원, 백운광장 중심시가지지형이 879억 원, 인쇄거리 중심시가지지형이 1713억 원, 이렇게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지형과

같은 대규모 뉴딜 사업에 사업비가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비와 지방비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실제 발표된 사업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 광주역의 경우 1조 156억 원 중 500억 원을 제외하고 부처 연계 사업이나 기금 등의 사업비이고, 백운광장은 879억 원 중 300억 원을 제외하고 579억 원, 인쇄의 거리는 1713억 원 중 1413억 원이 기금이나 부처 연계 사업 관련 사업비다. 다른 부처나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비까지 총액에 포함돼 있어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런 연계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투자가 중단되거나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민은 허탈감이나 배반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길수도 있다.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대규모 재생 사업은 사업구역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계획의 유연성이나 지역민에 대한 포용성 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변화가 많은 시대적 환경에서는 국가적 환경 정책 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간에 이를 수 있어 향후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뉴딜의 방향성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 밥알 하나

도 실상 먹기 위함이다. 평화나 전쟁이나는 갈림길에서 이념이나 철학 따위는 실상 고고한 것이 아니다. 밥알 하나로 달라진다. 아무리 고고한 시인도 먹어야 살고, 사랑하는 이에 대한 증명도 밥상이 먼저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싸우는 이유도 밥알이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보급품인 밥이다.

지구 곳곳이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이다. 기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밥알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밥알 하나를 생산할 땅을 빼앗고, 또 그 땅을 지키고자 수많은 생명을 바치고,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붓는다. 북한을 탈출하여 타국 땅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꽃계비들의 모습은 가슴을 멍멍하게 한다. 양산한 배를 드러낸 아프리카 어린이의 모습도 애잔하다. 그러나 슬러였음에도 유교적 이념을 노려낸 총담사의 “구물거리며 삼손물성, 이를 막여 다스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통치가 가능해)라는 구절은 여전히 유용하고,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는 속담 역시 지금도 진리다.

이웃 간에 서먹서먹해도 밥을 담 너머로 빌려주던 때가 있었다. 어머니는 밥이 부족하면 이웃집에서 빌렸고, 이웃이 부탁하면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둔 아저씨가 먹을 밥이라도 빌려주시곤 했다. 밥통이 없던 시절, 따끈따끈한 밥 한 그릇이 이웃의 갈라진 틈새를 잘도 메웠다.

예전에 나는 밥을 저항의 수단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내 요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는데, 기어코 내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잠을 이뤘던 어머니에게 비열하게 생소기를 부렸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단식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곡기를 끊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진대 식음을 전폐하겠더니, 유치한 시절이 떠올라 단식의 ‘단’자만 꺼내도 그 녀석을 죽도록 때주고 싶어진다.

밥알은 씨앗이다. 밥알 하나 먹으면 내 몸에 씨앗 한 알이 심어진다. 콩밥을 먹으면 콩밭이 되고 밤밥을 먹으면 내 몸에 푸른 밤나무가 자란다. 내 몸은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진 밭이고 눈인 셈이다. 밥알은 강아지도 먹고 참새도 먹고 심지어 똥파리도 달려든다. 우리 모두는 밥알 하나를 위해 노동하고 사유하며 인간으로 살아가고, 또한 신에게도 가장 거룩한 것을 바치니, 어쩔 밥그릇은 가장 경건한 염주 그릇인지 모른다.

그런 밥알이건만, 난 예뻐 밥에 대해 그다지 고마워 해 본 적이 없다. 오늘 하루 내 목구멍으로 몇 개의 밥알이 넘어갔는지 헤아려 본 적이 없다. 매일 세 번 거르지 않고 밥을 대하건만 그렇게 애면글면 찾다가도 배가 차면 까마득히 잊고 돌아서 버린다.

그 밥 한 숟가락은 수십 개의 밥알로 이뤄졌고, 또 한 끼의 밥그릇은 또 수십 번의 숟가락질로 채워지건만 여태 밥 한 그릇이 몇 숟가락쯤인지, 한 숟가락 속에 몇 개의 밥알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잠으로 용감했고 지금도 용감하다.

집이 가까워 오는데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 봉지에 있다. 우리는 어머니의 넉넉한 얼굴을 보고 이 미 말고 있다. 어쩌면 그 밥은 내일 아침 당신 상에 오르지 모른다.

### 社說

## 한전공대 특별법 여야 대승적 결단 절실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회의가 엇그제 열렸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폐광 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등 일부만 심의하고 한전공대 특별법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회의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 시도 민지위원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공대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발의됐지만 여대껏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해 온 탓이다. 더욱이 4월 재보선 등 임박하자 민주당마저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문제에 치중하면서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추세다.

한전공대가 내년에 개교하려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현재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한전공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여야는 대승적으로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 더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사태로 공교육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들의 학습 부진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들은 방학을 맞아 고액의 유명 온라인 강사나 과외 등을 택하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남몰래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내 집단감염 우려로 학교 교육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교육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이 받는 사교

육이 최근 2·3년 내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42.8%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사교육 의존성을 막기 힘들다면, 거꾸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교육이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학생들을 불러 학습을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의 말처럼 ‘교육비우치’를 지급하고 학원을 이용해 온라인 학습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 無等鼓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에선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루머들이 세간을 떠돌아다니고, 정치권에선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루머를 퍼뜨린 이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고 잠복했다가 틈만 나면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힌다.

지금 세간을 달구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정치권

에서 가장 최근에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이적 행위’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구대 정치’라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늘 그렇듯 정치권의 공방에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데다, 국민은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되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한 남성이 몇 년을 시구어 온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뒷면에는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 기 고



**이선호**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

엄마. 이 단어만 떠오르면 왜 괜히 눈물이 날까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에게는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지금도 어머니라는 표현은 왠지 어색하네요. 그냥 엄마가 좋아요. 초등학교 때 저를 일찍 서울로 유학(전학) 보내는 바람에 자주 뵈지도 못했던 우리 엄마.

엄마 없이 낯선 타향에서 산다는 것은 그 당시 어린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학 때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영등포역에서 한행열차를 타고 6시간 30분 정도를 달리면 전북 김제역에 도착합니다.

제가 왔다고 엄마는 심포항(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가서서 생합과 죽합을 구입해 정치(부익)에서 정성껏 손질하여 아들 중 막동자인 저에게 요리해 주셨어요. 생합을 살아 있는 채로 국물과 살을 찌워서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생합 살이 스테이크였어요. 얼마나 두껍고 큰지 지금은 그런 생합을 보기가 어려워요. 죽합도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맛조개 보다 훨씬 크고 길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합과 죽합을 찾아보기가 쉽지

## 코로나 팬데믹과 약식동원(藥食同源)

않지요. ‘엄마표’ 생합과 죽합은 맛과 영양이 어우러진 음식으로 그 어떤 보약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면역 기능을 강화했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타향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고 늘 생기 넘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심포항 바다에서는 생합이 전국에서 70% 정도 생산돼 생합과 죽합이 흔했던 시절이었죠. 죽합을 지금은 맛조개라고 하고 생합은 백합이라고 합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으로 일상을 잃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로 면역력마저 감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리학자로서 감히 권해봅니다. 생합과 죽합을 자주 드시면 코로나 블루와 작별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을 더 중시해 왔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1986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몸속의 방사능을 제거하는데도 음식이 약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생합은 베타인과 미네랄 등의 영양 성분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당질의 대사를 돕고 에너지를 만들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베타틴 B1과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또 피부나 점막의 기능 유지나 성장

에 도움이 되는 베타틴 B2,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판토텐산이 함유돼 영양가가 높은 음식입니다.

죽합은 단백질·지방·포화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타우린이나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관 속 노폐물과 중성지방을 배출시키며,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식재료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떨칠 수 있는 면역 강화 식품으로 생합과 죽합을 권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상당수 국민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데, 만병의 근원은 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뼈를 녹인다고 했지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해변 지역 음식을 찾아 드시면 어떨까요? 특히 생합과 죽합을 구입해 바다향을 음미하며 스트레스를 떨쳐 보세요. ‘만사(萬事)는 비재막기(非財莫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음식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만사(萬事)는 비식막기(非食莫事)’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병을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 음식으로 다스렸습니다. 즉 약식동원(藥食同源)이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좋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b>無等鼓</b>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권에선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루머들이 세간을 떠돌아다니고, 정치권에선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루머를 퍼뜨린 이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고 잠복했다가 틈만 나면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힌다.	하게 해 줄 자원이 없어서’라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진실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금 세간을 달구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정치권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b>비범한 증거</b>	시몽 라플라스 역시 “비범한 주장에 필요한 증거의 무게는 ‘이적 행위’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구대 정치’라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늘 그렇듯 정치권의 공방에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데다, 국민은 매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되어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상함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실과 거짓의 판명은 명백한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제는 ‘한 남성이 몇 년을 시구어 온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뒷면에는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	지금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각종 주장과 의혹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분명 ‘무리’다.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정편향(確證偏向)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비범한 주장에 걸맞은 비범한 증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b>光州日報</b>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牧</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경제 부 220-0663 사회 부 220-0652 전·남·분 부 220-0642	전화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